

# 物議를 일으킨 局

金寅校訂

[이 기보는 현현각에서 출간한 圍棋古典叢書 中 6권인 死活妙機 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바둑은 日本 讀書新聞 주최 日本選手權戰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동안 10년간이나 대국보를 보이지 않던 秀哉名人和 최후의 勝負를 다루기로 한 약속으로 실현된 바둑이다.

그런데 선발된 사람은 中國출신의 天才棋士로 日本棋界에 慧星처럼 나타난 吳淸源 青年棋士.

여기서 약관 20세의 吳五段(당시)은 巨匠에 대해 서슴치않고 三三, 花點, 天元에 着點, 本因坊家에서 禁忌로 하는 곳들에 두어서 世間에 비등한 物議를 일으켰다.

또한 本譜중 第九譜 白160의 수는 秀哉의 門下에서 연구해낸 수라는 등 많은 화제를 남겼다.

그리고 전후 14회에 걸친 대전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1회	1933년	10월 16일	黑1부터	黑21까지
제2회	1933년	10월 23일	白22부터	黑31까지
제3회	1933년	10월 30일	白32부터	黑47까지
제4회	1933년	11월 6일	白48부터	黑69까지
제5회	1933년	11월 13일	白70부터	黑79까지
제6회	1933년	11월 20일	白80부터	黑95까지
제7회	1933년	11월 27일	白96부터	黑107까지
제8회	1933년	12월 4일	白108부터	黑109까지
제9회	1933년	12월 11일	白110부터	黑121까지
제10회	1933년	12월 18일	白122부터	黑131까지
제11회	1933년	12월 25일	白132부터	黑155까지
제12회	1934년	1월 15일	白156부터	黑159까지
제13회	1934년	1월 22일	白160부터	黑183까지
제14회	1934년	1월 29일	白184부터	黑252까지

吳淸源은 中國태생으로 1914年生. 1926年인 13세때부터 棋才의 출중함이 日本에 전해져서 渡日하게 되었고 倣격적으로 三段을 받았으며 木谷實와 “新佈石”을 시도하여 棋界에 革命을 일으켰다.

이후 당대 일류인 기타니, 후지사와등과 十番棋를 벌여 모두 첫수를 고쳐 20年間 棋界의 第一人者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 第一譜(1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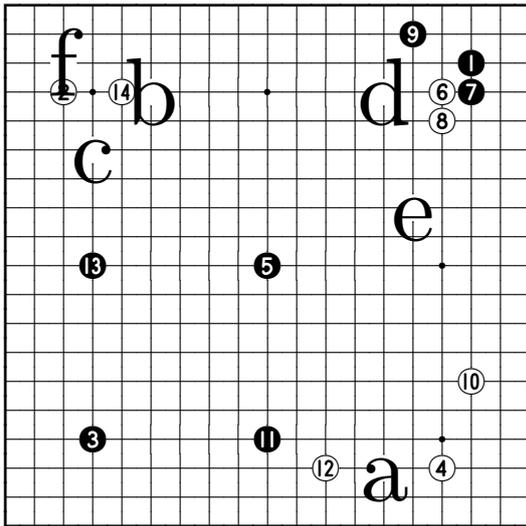
黑1로 두어 한수로 귀를 확보하고 다음 黑3, 5로 花點, 天元을 차지하여 전국의 세력적 조화를 보유한다.

白6을 3三의 둘레에 대한 직접적인 수로는 가장 유력한 수단.

白12는 黑으로부터 a로 벌리는 것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이 수로 곧장 14에 굳히면 黑13의 절호점을 주게 된다.

黑13은 14의 곳보다 명백히 큰 곳.

하지만 黑13으로는 黑b 白c 黑d 白e 黑13의 수순을 먼저 밟아두고 f에 붙이는 맥을 노리는 것이 이상적이었다는 吳九段의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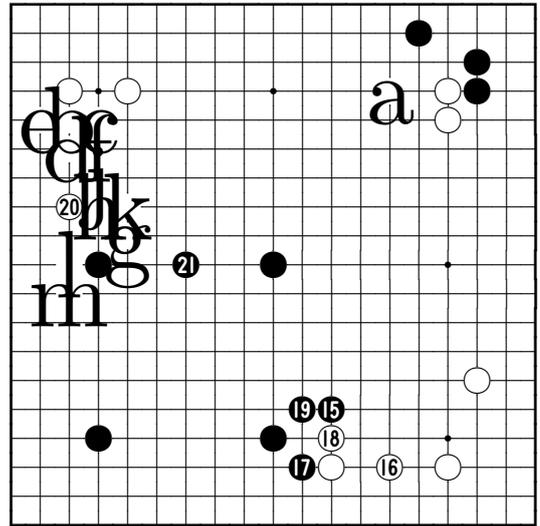


## 第二譜(15 ~ 21)

白20은 현재로는 최대의 곳. 이 수로 a에 틀을 잡는 것도 호점이지만, 그러면 黑b 이하 f까지로 黑의 세력이 이 쪽에 확대하게 된다.

黑21이 문제의 수. 당시에는 많이 두어졌으나 g에 마늘 모로 받는 것이 더 좋았다. 이 수는 新佈石의 초기에 많이 쓰인 수이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세력에 너무 편중되고 있어 전국적인 면에서는 느슨한 것으로 생각되는 수.

이 수를 적극적으로는 h에 붙이고 白j 黑k 白l 黑m으로 두어가는 방법도 있었다.



## 第三譜(22 ~ 44)

白22는 통렬한 침입. 다음 白24의 급소가 남아있는 한 포위된 가운데에서도 수습하는 것은 쉬운 일로 黑의 세력권에서 집을 헤치게 된다면 이후의 싸움은 상당히 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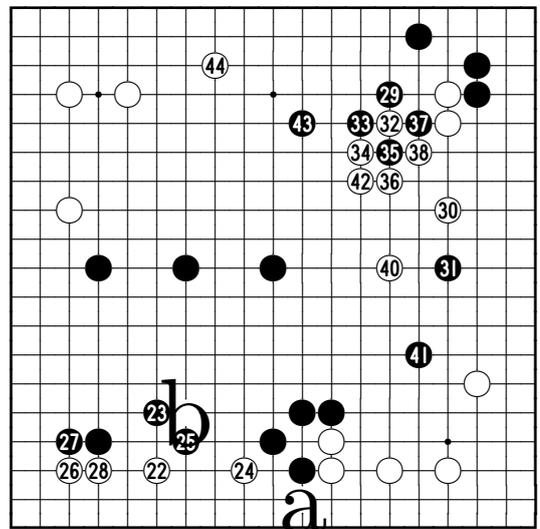
黑25로는 a에 차단하고 싶은 곳이나 그러면 白28 黑26 다음 白b로 붙여 포위망을 뚫게 된다.

黑29는 이때의 요소. 黑31은 白에게 육박하면서 天元의 黑點을 유용하게 하려는 의도.

白34, 36은 상용의 맥. 34로 35면 부분적으로는 두렵지만 黑 44방면에 손을 돌리게 된다.

白44는 큰 곳이었다.

49... 이음.



## 第四譜(45 ~ 69)

黑45, 47은 이미 노리던 곳. 47로 51에 받으면 白54로 서게 되어 귀의 白을 이대로 안정시킬 뿐으로 묘미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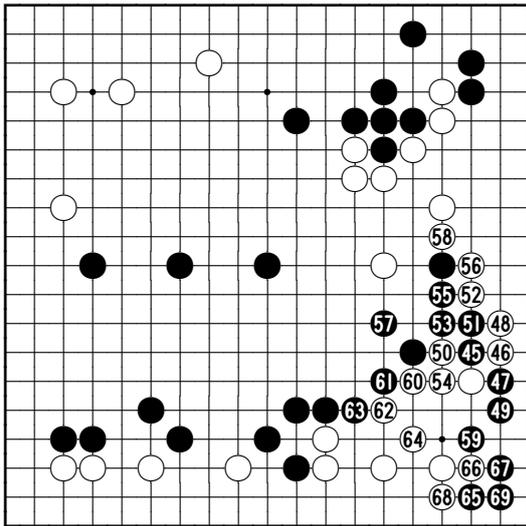
黑49는 절대수나 다름 없는 곳. 白48과 함께 쌍방 최강의 버팀수로써, 말하자면 최초의 승부처라고 할만 하다.

白50 이하는 중반에서 처음으로 맞게 된 어려운 장면.

黑59 이하로 黑이 귀에서 산것은 白58까지로 안전을 도모하게 된 댓가로써 당연.

白64를 게을리하면 黑이 64.

黑69까지, 접전도 한때듭지었고 이 결과는 서로 불만없는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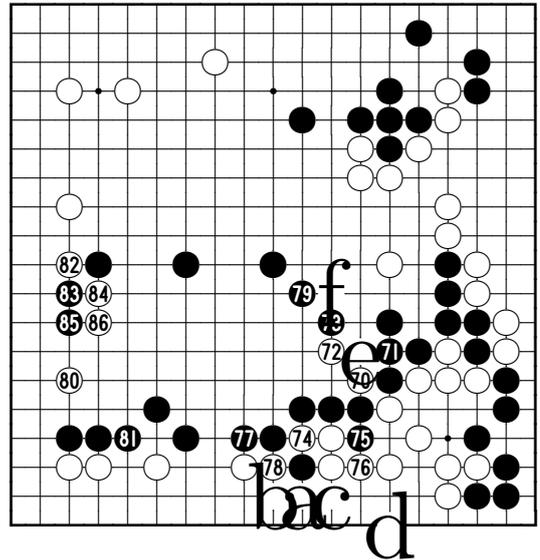
## 第五譜(70 ~ 86)

白70 이하는 다시 찾아든 제2의 난소(難所). 白이 이곳을 두지 않고 놔두면 黑75 白a 黑b 白c 黑78 白d로 굴복당하게 된다.

黑73, 이 수로 e에 몰고 白f를 허용하면 모처럼 쌓은 黑세가 무너지게 된다.

黑77은 절대. 白78로 黑 한점을 잡고 적잖은 실리를 취하면서 안정을 이루었고 한편 黑도 79로 보강하여 중양을 확보한 것이 중반전 제2단계의 결말이었다.

黑85는 이 경우의 최강수 白86 또한 강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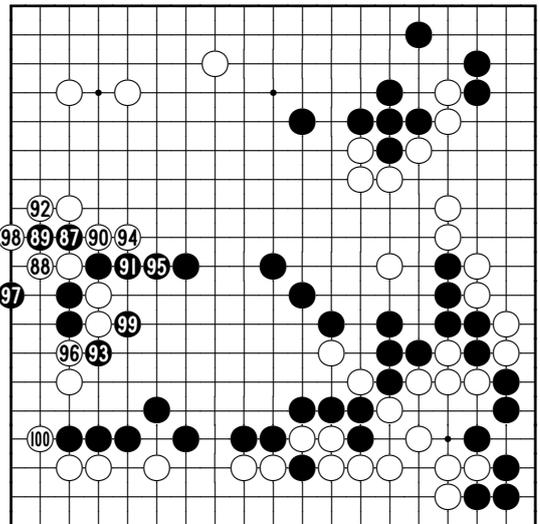
## 第六譜(87 ~ 100)

黑87, 89로 두점 버린 수단이 좋았다.

黑89로 그냥 91에 뺏고, 白89 黑93으로 된다면 물론 좋겠으나, 黑91이면 白a로 꼬부려서 안좋다. 黑은 87, 89의 두점을 사석으로 白90, 92를 강요하고 黑91, 93으로 안정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白94를 선수로 당하여 黑95로 굴복하게 된 것은 아팠다.

黑97은 활용가치가 있는 맥. 그냥 a에 몰면 白98 黑99 다음 白97로 건너가게 한다.



## 第七譜(101 ~ 110)

白2는 큰 곳. 두점의 연결은 물론, 다음 白8 이하의 끝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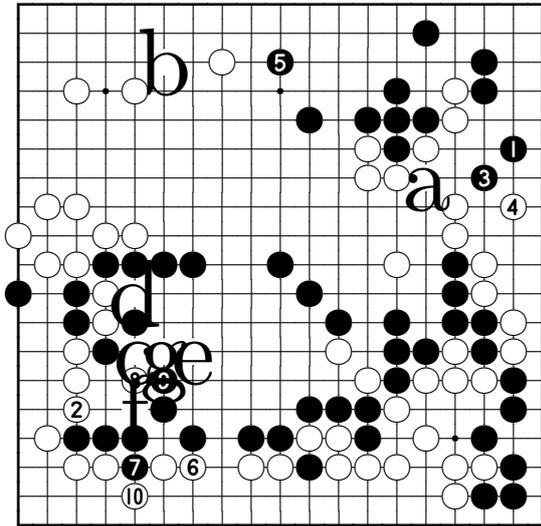
를 본다.

黑3은 선수. 白4로 받게한 다음에도 a로 끊는 수를 본다.

黑5는 현재로는 유일하게 큰 곳. 이 수에 의해 다음 b로 침입하는 수를 본다.

白6은 문제의 수로, 이 수는 먼저 8에 가는 것이 수순이었다. 白6으로 8에 두고 黑7이면 白c 黑d 白e이고 白8에 黑c면 白f 黑7 白9로 역시 黑이 나뉘었다.

黑9는 g로 받는 것이 좋았다. 이 수는 白6과 맞먹는 악수였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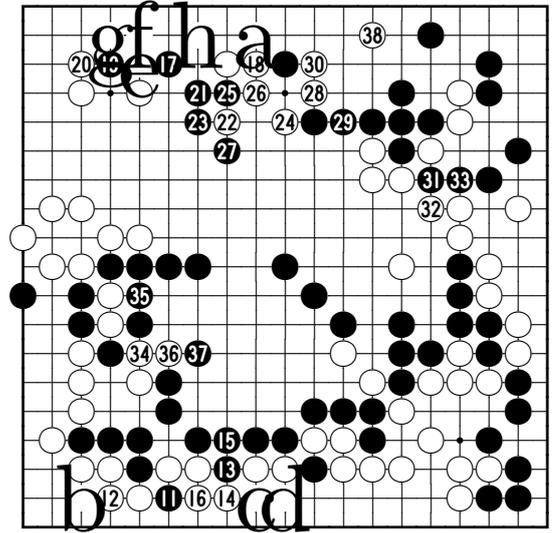
### 第八譜(111 ~ 138)

黑11로는 13, 15에 끼워있고 白이 여기서 응수해준다면 그런 편이 좋았으나, 白은 黑13 白14 黑15 때 손빠고 a쪽으로 갈 염려가 있다. 이때 黑12면 白b 黑c 白d로 두어서 뚫려도 별게 없다.

黑17로 뛰어들어 승부는 무르익었다.

黑25부터 30까지, 서로가 침식을 하며 바뀌친 격인데, 이 결과는 잘 어울린 것으로 승패는 의연히 불명한 상태이다.

白38로 달린 수는 현재로 최대. 이 수로 白e 黑f 白g 黑h 白38 때 黑6을 선수로 당하고 8로 붙여 黑이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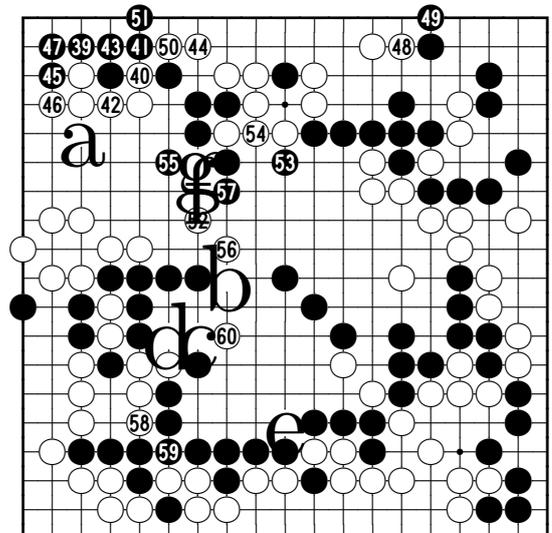
### 第九譜(139 ~ 160)

黑39는, 白이 41에 치중해오면 黑40 白43 黑42 白a 黑50의 막는 수를 선수로 둘 수 있고 또한 白40으로 47이면 黑41로 호구쳐 잇는다. 보와 같이 白40부터 44까지가 두터운 끝내기였다.

黑45, 47로 짓혀 이은 것은 미세한 형국이었으므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실은 잘못이었다.

黑45로는 50에 잇고 참을 곳. 白50으로 끊긴 수 때문에 이후의 白60이란 절묘한 수를 부르게 되었다.

白60에 대해 黑b면 白c 黑d 때 白e로 끊는 수, 그리고 黑b로 c면 白f 黑g 다음 白b로 黑집이 크게 해가 된다.



## 第十譜(161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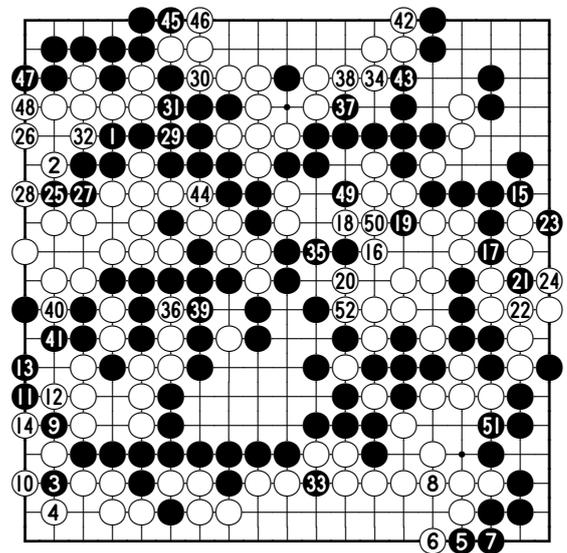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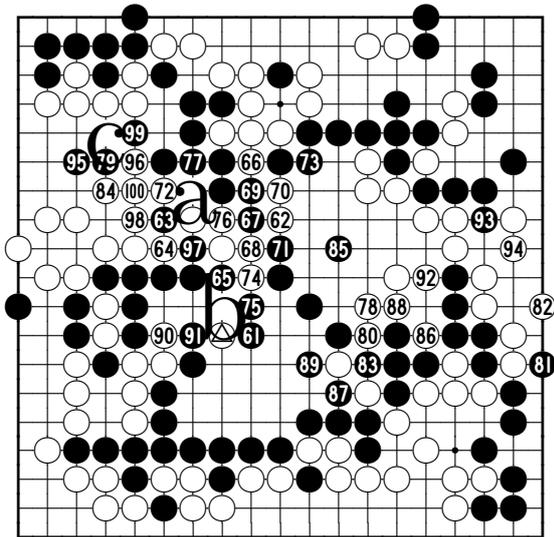
黑61은 이상한 수같으나, △ 표에 대한 최선의 응수.

白62가 또한 어려운 자리. 黑61에 당장 白a 黑77 白65는 黑b로 끊어 白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黑63, 65는 이때의 최선, 黑65로 그냥 97은 白76으로 잇게 되어 이것은 黑이 수습하기 어렵게 된다.

黑85는 절대. 黑87로 白86의 한점을 잡는 것보다는 보의 편이 맛이 좋고 白에게 팻감을 주지 않는다

白100의 수로 c의 곳을 끊는 패는 이 국면에서는 되려 위험이 따를 뿐이라고 하겠다.



## 第十一譜(201 ~ 252)

黑15는 지금으로서는 최대이며 白26은 맥.

이 바둑은 중반이후 여러차례의 파란이 일었으나 승패 불명한 채로 진행되다가 급기야 제7보 白60의 묘수에 의해 대세가 결정되었다.

1933년 10월 16일에 두기 시작한 본국은 전후 14회에 걸쳐 두어졌고 다음해인 1월 29일에 끝을 냈다.

또한 소비시간은 각기 24시간을 거의 다 쓴 세기적인 열전보 였다.

252手 끝 白 2戶勝